

+

# KNSI REPORT

<제37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 김정은체제 분석과 한반도 정세 전망 □

일시: 2011년 12월 22일(수) 15:00~17:00 / 장소: 코리아연구원

- ▶ 사회: 이정철(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숭실대)
- ▶ 토론: 김준형(한동대), 백준기(한신대),  
이희옥(성균관대), 정창현(민족21)

- 주최: 코리아연구원, 오마이뉴스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사 회:

오늘 좌담회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체제의 성격 분석과 전망을 위해 소주제 1,2,3,4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의위원 구성을 살펴볼 때 권력의 순위 변동이 있는지, 올해 평양에서 ‘세계로’ 라는 구호가 나온 바 있어서 중국의 덩샤오핑처럼 바로 개혁, 개방으로 갈 것인지, 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상과 유혼통치 방식으로 갈 거라는 양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김정은체제를 지지하는 행보와 김정일위원장의 방중, 방러와의 연관 속에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김정은체제를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 저는 원로후견체제라고 보는데, 집단지도체제나 당정군 관계 등에 대해 전망해보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성택 또는 오극렬 역할론과 권력변동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도 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중관계 속에서 김정은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북미관계인데 제네바회담 개최를 11월 22일 합의 했었고, 그리고 오늘 성김 대사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북한과 긍정적인 합의가 됐었다는 걸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열릴 북미 제네바회담과 94년 제네바합의와 비교분석해 주시고, 향후 미국의 대응에 대해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정부와 김영삼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교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명박정부의 행보를 분석할 때, 국내정치 때문인지, 아니면 남북 간 물밑접촉을 통한 진전이 있었는지 등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정은 회장이 조문 가기로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키리졸브훈련이 있고, 봄에 핵안보정상회의와 천안함 2주년, 김정일 생일이 있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겹치는 등 이 시기에 남북간 긴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발적인 사건 가능성 등 남북관계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총론으로 김정일 없는 2013년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의위원 명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단에 드러난 권력서열과 관련해서 김정은체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정창현:

국가 장의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점,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장의위원 1번에 배치한 차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김정은이 국가기구의 최고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의위원장을 맡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 없이 1번으로 김정은을 배치함으로써 모양새를 맞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94년도 김일성 장의위원회보다 구성원이 늘어났는데, 지난 해 당대표자회의를 통해서 당 기구나 내각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과거에 공식이었던 자리를 대체로 다 채웠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때보다는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의위원회 순번은 정치국 위원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후보위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방위나 당 중앙위가 배치가 되고, 당 부장들, 내각의 부총리, 상들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북

한이 국가행사를 할 때 배치되는 서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의위원회 구성 등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북쪽 내부에 김정일 유고에 대한 메뉴얼이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에 김정일 유고에 대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과 행동 메뉴얼 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장 상징적인 증거는 2009년도부터 북한이 김정일위원장의 불편한 모습들을 노동신문에 그대로 노출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극단적인 형태가 작년 10월 당 창건 행사 때 생중계를 했는데, 김정일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절뚝거리면서 걸어오는 장면을 그대로 다 북쪽 주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거, 결국 2009년도부터 이렇게 공개하는 과정 자체가 유고 대비 프로그램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당히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발표는 못하지만 시사함으로써 대비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 후계자 등장을 위한 대중적인 정치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고 대비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2009년도부터 각 분야별로 김정일 기록영화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유고에 대비해서 북측이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써 이루어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의 최고 엘리트 예를 들면 김경희, 장성택, 김경옥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 1부부장, 이런 사람들의 승인 하에 은밀하게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94년과 달리 북한 주민들의 동요라든지, 권력층 내부 동요 없이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 회:

1994년보다 차분한 행보는 이미 준비된 메뉴얼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벌써 정주간님이 몇 번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당대표자회의 때 얼굴을 저렇게 내비치는 건 마지막이란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실제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유고 대비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면, 작년에 방중과 올해 방러,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당대표자회의, 작년 6월 임시 최고인민회의 이게 전부 그런 메뉴얼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중 당시의 김정일의 행보들과, 중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지도 중심으로 지지한다고 이번에 발표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죠.

이희옥: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2009년 초에는 후계체제가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후계작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토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 중국은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한 것들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전략적 실수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로 대북정책들을 조절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지도부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러시가 벌어지게 됩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이 2010년 8월에는 중국을 방문해서 이미 중국 지도부들과 상견례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중국 지도부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2월에 중국 공안부장 명젠주 방북 당시 중국 측에서는 명확하게 보도가 안됐는데, 조선중앙통신에 북한 후계체제를 인정하는 발언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북한언론의 톤보단 훨씬 약했지만, 중국의

인민일보 등에서 후계문제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된 것으로 기사화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입장에서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는 상당히 일찍 정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중국은 이번에 메뉴얼대로 움직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보면 중국측 조의가 두 번 발표되는데, 처음에 발표된 외교부 조의에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서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발표합니다.

그날 오후에는 4개 연합기구 명의로 공식 조전을 발표할 때는 더 명확하게 합니다. 김정은 영도라는 표현을 명확히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중 북한대사관에 조문을 갔을 때, 후진타오는 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조문을 간 직후에 중국 CCTV에서 조문 내용을 전하면서 김정은 영도 아래라는 표현을 다시 쓰게 됩니다.

결국 중국도 준비 없이 불일치된 상태에서 나왔다가 보다는 외교부가 아마 좀 실무적인 형태의 조전을 낸 후, 준비된 메뉴얼에 따라 김정은체제를 인정하는 식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 회:

2009년 7월에 전략적 방침을 정할 때 핵문제 등을 넘어 후계문제까지 북중간 의제였다는 건가요?

이희옥:

예, 왜냐하면 2009년 7월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가장 큰 관건이 뭐였냐 하면 후계체제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 중국은 이미 그에 대해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북한의 당대표자회의가 열릴 때, 그 직전인 2010년 8월 방문 때 양국 정상회담 내용에 보면, '양당 간에 집정 경험을 공유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후계체제가 정리되고, 다음에 북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북한 또한 상당 부분 당-국가 체제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제도 대 제도로써 북중관계를 끌고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는 그 시기가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오르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향후 대를 이어서 북중 권력 간에 어떤 교감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틀, 제도의 틀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 회:

알겠습니다. 러시아쪽은 어떤지요?

백준기:

예. 크레믈린은 메드베데프 대통령 명의로 조전을 보냈죠. 김정은이라는 명칭도 씁니다. 이번 건에 대한 러시아 입장은 전략적 제3자란 포지셔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응과 중국의 반응 사이의 중간적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제3자란 첫 번째는 남북한 제1 당사자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제2의 이해관계자는 미중으로 보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제3의 포지셔닝을 하겠다는 건데, 남북 당사자들하고는 직접 접촉을 하고, 미중보다는 먼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접촉방식도 그 순서에 따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하고 직접 연락을 취했고,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생일 축하를 계기로 삼았던 거지만, 실제로는 북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와 더불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라고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먼저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중국 외무장관, 양제츠가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외무성 사이트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동아시아와 그 지역의 안보에 대해 논의 하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클린턴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한반도 문제에 전략적 제3자 역할을 하겠다는 러시아의 의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 회:

러시아 국책연구기관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전략적 세계전망 2030’ 특별보고서와 달리 러시아도 김정은체제가 유지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김정은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는 건가요?

백준기:

1차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 붕괴라고 봅니다. 그게 한반도와 주변 4강에 제일 불행한 시나리오로 보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에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김정은의 리더십을 공고하게 보느냐, 아니면 김정은 리더십이 아니라 북한의 집단적인 리더십을 공고하게 보느냐의 판단을 유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어떤 급변사태에 의한 통합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지만, 김정은 리더십에 대해 확실하게 안정적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행보와 다른 중간적 입장을 취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내용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걸 표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리더십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후견 정치 같은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발표되었던, 2030 트렌드 집필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제일 강하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게 후견정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코멘트한 걸 보면 수렴청정 가능성 하나를 열어두는거죠. 김정은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형식적 리더십일거다. 그 뒤에 실질적 리더십이 숨어 있을게 아니냐.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후견정치 또는 수렴청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김정은 리더십’ 이라고 표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 회:

그럼, 지난 김정일 방러 때 러시아는 이미 그런 노선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백준기:

저는 그게 분기점이었다고 봅니다. 메드베데프와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김정은 리더십 인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더 따져봐야 됩니다.

사 회:

이번에 보면 일본이 중국보다 빨리 조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판단이라기보다는 일본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메뉴얼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데, 미국쪽 반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형:

미국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로요. 미국에서 2009년에 호들갑을 한 번 떨었잖아요. 그 후에, 아마 준비된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에 사망사실을 알았는지는 나온 자료들로 봐선 불명확하지만, 1994년하고 비교하자면, 94년에 미국이 앞서가는 바람에 한국과 관계가 안 좋았고, 이번에는 오히려 한국의 반응과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상황을 더 이상 확대 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물밑 작업을 오히려 더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보는 일단 오바마는 침묵하고, 클린턴이 발표하되, 김정은은 언급하지 않는 식의 상당히 정리되고 세련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북미회담의 분위기도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 회:

다시 북한의 향후 정책 논의로 돌아가서, 김정은체제가 들어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중국식의 78년도 상황 같은 걸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올해 김정은체제는 평양 시내에 ‘세계로’라는 구호로 내걸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민족끼리’ 구호가 사라진 대신 ‘세계로’를 추구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노동신문에 김정일 유훈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훈에 ‘세계로’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애긴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개방조치들이 나올 거 아니냐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창현:

2010년도인가요? 저도 아직 안가봤습니다만, 김일성종합대학 1층 로비에 김정일이 직접 내린 휘호가 걸려 있답니다. ‘밭은 조선에 딛고 있고, 세계를 지향하는’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09년 이후에 북쪽 내부에서 일정하게 이런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그게 대학에 걸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일정부분 포용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논의의 결과를 김정일의 이름으로 상징적인 장소인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것을 게시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어떤 방향성을 주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김정은체제를 안정시키려면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직 개혁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대외개방으로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유훈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봅니다.

사 회:

개혁과 개방을 분리해서 본다면 개방조치가 중요한 유훈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정창현:

북의 노동당 내부에서 2009년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범위와 주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했다

는 거죠. 그런데, 항상 북쪽의 경우 상반된 메시지 2개가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측면을 보면, 6.24담화에서 대외개방 얘기는 없고, 김정일 기명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책은 북측 내부의 사람들을 안심 시키고 '기본적으로 개방이 아니다' 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즉, 김정일위원장이 무역관계 일꾼들을 불러서 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라고 지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코카콜라, KFC 등을 접촉하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력갱생, 국방 강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자신이 가야되는 원칙이고,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 외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유연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사 회:

그러면 개방이 될 때 이런 김정일 유고국면이 더 유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느냐 이것이 조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창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체제라고 하는 것은 2010년 9월 28일날 출범한 것이다. 이미. 그러니까 2010년 9월 28일 이후는 이미 김정은의 북한이지, 김정일의 북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의 김정일의 행보라는 것은 계속 지방 출장 다니면서 극히 필요한 부분, 미진한 부분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당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중심에는 김정은이 이미 등장하였고, 최소한 당과 군대 내에선 김정은 주도로 모든 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정일 유고국면을 짧게 처리하면서 외부의 우려를 불식 시키고 기존의 노선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김정은체제를 안정화 시키는 방법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개방 정책이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좀 북쪽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4월에는 축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49제를 하던, 100일상 정도로 하고, 그걸 마무리하면서 선전의 방향을 바뀌나갈 것으로 봅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김정일위원장이 남긴 유혼을 우리가 완수하면서 그것을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구호로 바꾸면서, 내년 4월달 행사를 크게 하고 그 기조와 흐름을 10월까지 이어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사 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북한이 3년상을 반복할 거다. 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의 평가와는 좀 다른 평가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정창현: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김정일 같은 경우는 3년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 국방위원장이었고, 최고사령관이었고, 총비서직만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국방위원장 타이틀과 최고사령관 직위 만으로라도 당과 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외부에서 우려하듯이 북한 내부에서도 제도적 완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음은 어디로 가는거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3년상을 가져가기 보다는 아마도 올해 안에 김정은이 최소한 최고사령관직이라든지 국방위원장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지난 번 당규약에 당 총서기가 당중앙 군사위원장을 겸직하도록 규정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당대표자들을 소집해서 김정은을 총서기로 추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미 당대표자회의에서 이미 정치국 후보위원들을 다 바꿔놓았기 때문에,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총서기를 추대하면 자연스럽게 당중앙 군사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 회:

제도적 리더십을 갖추고 국면전환을 한다는 건가요?

백준기:

제가 볼 때는 후계정치의 연속인데, 실제로 김정은이 옹립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상층 관료들에 의해서 지도자로 옹립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관료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부채의식 뿐만 아니라 옹립과정에 개입한 관료들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회색 추기경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내가 김정은을 만들었다’ 는 회색 추기경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후견정치가 좀 세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약간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권력 갈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 회:

정 주간님은 지금 개방정책으로 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정책 전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희옥:

2010년 9월 이후로, 정 주간님 말씀처럼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북한이 만들어진 그 이후 지금까지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김 위원장과 김정은의 행보, 중국과 소통한 내용들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경험 관련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유훈이 곧 개방일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유훈과 개혁 개방은 병렬로 놓고 보기보다는 유훈이 곧 개방일 수 있다. 유훈이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고, 중국이 신속한 지원을 하는 방식들도, 이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사 회:

참석자 대부분이 북한이 보수적인 노선보다 개방으로 갈 거라 예측하는데 김교수님은 어떠신지요?

김준형: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훈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것이 개혁개방으로 갈 수도 있고, 여차하



면 보수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급한 것이 경제니까 개혁개방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두 개의 경중을 비교 하자면 일단 개혁개방쪽으로 무게중심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창현:

김일성 주석의 3대 유훈이 있어요. 부강한 조국 건설,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의 안정인데, 이를 위해 김정일이 했던 활동내용이 다시 김정일의 유훈이 되는 겁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위원장의 유훈에 따라서 김정은 영도자는 이러이러한 걸 한다, 이런 방식의 수사가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요컨대 북한은, 선군노선, 자족적 민족경제,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본 강령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개방으로 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제특구,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화해협력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 그것을 위해서 미국과 관계 맺는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때는 위협도 하다가, 어떤 때는 화해도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겠느냐 전망해 봅니다.

특히 김정일이 남긴 것은 2010년 8월에 방중 전까지는 당대표자회의를 열어서 김정은을 공개하겠다는 걸 결정했는데, 중국에서 성과를 가져오면서 당대표회의를 연기하고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논의해온 정책적 방향을 확정을 하고, 김정은을 빨리 공개를 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논의된 김정은에 대한 섭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2010년에 김정은체제가 실제로 출범했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장성택 섭정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2004년도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장성택조차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로 지방으로 철직될 수 있는 체제가 북한입니다.

사 회:

자연스럽게 김정은체제의 성격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변화를 가져갈 거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안정성이 중요할 텐데, 김정은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유일지도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정창현:

김정은을 중심으로 유일 영도체제를 수립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거 80년대에 김정일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 행로를 보면 철저하게 혁명원로에 대한 존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김정은도, 섭정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원로들을 잘 대해주고 관리를 잘하면서 자기를 떠받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적절하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새로 짜여질 김정은체제의 지도부에 누가 포진할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멘토들인 장성택, 김경희, 리영호 그리고 경제통인 이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양자의 신구의 조화를 모색을 하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이 얼마만큼 정치력을 발휘할 지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몫이고, 북쪽 내부의 원로그룹들이 그걸 얼마나 원만하게 조정해주느냐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

는 김정일 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김정은체제가 기능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사 회:

94년도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장 때 보다 유리하다는 얘긴가요?

정창현:

왜냐하면 북쪽 내부에 김정일이 등장할 당시 과정에서도 다양한 파벌들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이질적 기류의 파벌도 있었고, 같은 경향성 내부의 약간 정책적인 차이가 있었던 파벌도 있었죠. 근데 지금 노동당 내에 그런 기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상황에서 갈등의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 또 그것을 김정일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사람과 노선을 일단 김정은한테 다 붙여 준 것으로 봅니다.

사 회:

어제 언론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김정일은 10년 걸쳐 ‘후계 쟁취’, 김정은은 2년 만에 ‘후계 급조’ 라는 이 비유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이희옥:

여기 오기 전 중국 전문가의 메일이 왔어요. 1.3.10 이렇게, 보던데, 3년 내로는 북한이 안정이 유지될 텐데, 이는 3년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이 시기는 경제문제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국의 강력한 지원세력이 형성되어 있어 대외정책이 안정화되고, 미국도 이제 전략적으로 풀고 한국도 미국의 입장을 받아서 변화해 나가고, 그래서 도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첫째, 첫 해는 김정은이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원로들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 2년째는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 3년째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해나간다는 시나리오죠.

중국의 경험에서 보듯 초기에 권력이 매우 공고화되면 개혁개방 초기의 조치들로 개인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권력이 공고화되면 자기가 중심이 돼서 개혁개방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명확히 설정하고 질서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개인의 성격이 문제인데 장성택 등 이 사람들은 타협할거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김정은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는데 만약에 협력체제가 되지 않아서 김정은체제를 흔들게 되면 김정은은 3년 내에 3단계 방법들을 거쳐 가는 과정을 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초기에 권력들을 장악하게 되면 굉장히 북한식의 메뉴얼에 따르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봅니다.

사 회:

거기서 10은 무슨 의미인지요?

이희옥:

김정은체제가 3년 안에 공고화 된 후에 한 10년이 되면, 북한의 그랜드 디자인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남북통일이라든지, 사회적 개방 같은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 회: 이 견해가 북한의 리더십을 집단지도체제로 보는 건 아니죠?

이희옥: 그렇죠. 집단지도체제는 아니지만, 그냥 주어진 권력에 체제가 강화되는 것보다는 김정은 나름대로의 역할과 작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사 회:

역시 북한식의 유일영도체제로 가는데 그 과정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다. 이건가요?

이희옥:

예. 그렇습니다.

사 회:

아까 백준기 교수님은 조금 달랐죠?

백준기:

절반은 비슷하고 약간은 다른 점도 있는데, 많은 부분이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번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관계가 이전처럼 지속되길 바란다는 표현도 공식적으로 했고, 대신에 그게 김정은 리더십 중심의, 아까 정주간님 말씀하신 유일지도체제로 가느냐, 집단지도체제로 가느냐에 대한 판단은 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김정은의 단일한 리더십이 공고화 되었을 때 당연히 김정은 리더십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후견적 또는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나 아니냐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고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해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고위관료가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공간이 창출될 거라고 보더군요. 이번에는 3년상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단기간에 뭔가를 이뤄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거여서 오히려 희망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 회:

김정은체제에서 아까 회색 추기경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 어떻게 다른 변수를 볼 수 있나요?

백준기:

3년상을 치르면 3년간은 안전한데 이게 또 역작용이 날 수 있다. 3년상을 하지 않고 일찍 새로운 리더십으로 갔을 때, 그러면 최단 시간 내에 김정은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회색 추기경이든 주변의 테크노크라트들한테 실제 유훈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갈등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 외부 변수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중국 지원이 없으면 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해소해주고 지원해주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관료들 사이에서 김정은 리더십

에 대해서 회의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3단계 이야기 했듯이 그렇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러시아는 장성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외무부도 그렇고 러시아에 있는 전문가들 2/3 가까이 지목하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군부의 리영호와 당에서는 장성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군은 아닐 것이다. 북한 내부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중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중국이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러면 외부와의 외교적인 채널이 없는 군 테크노크라트는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중국쪽 입장보다 비슷하고 외부채널에서도 유리한 장성택이 제일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준형:

질문이 있는데 김정은이 뭘 보여주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어떤 면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요? 경제 개방이나 성과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1,2년 심지어는 3년까지도 김정은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정창현:

맞죠. 특히 경제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쪽 경제를 평가할 때는, 한국 GNP나 1인당 GNP의 몇 분의 1 밖에 안 되네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나 북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보다는 나아졌네’, ‘그전보다 조금 나아졌네’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식량 배급이 1인당 350그램 나왔는데 ‘어, 김정은 들어오고 나니 500그램으로 늘었네, 조금 좋아진 모양이네’ 라고 하는 거죠. 피부에 와 닿는 경제라는 관점에서 내년에 북한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것인지 봤을 때 에너지 문제거든요.

전력 문제는 내년 상반기, 늦어도 10월까지의 평양에 전기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제한 송전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희천발전소 완공과 더불어 희천발전소에서 평양까지 오는 전력선을 다 깔고 있거든요. 평양시의 전력문제를 해결하여 보여줄 것입니다. 또 원산, 함흥 같은 주요 도시들에 대해서 전력을 적어도 밤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고, 이런 방식이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년 4월, 45층짜리 고층 건물이 완공되어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됩니다. 북한 사람들은 ‘평양이 바뀌고 있다’ 고 적어도 실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내년 태양절부터 10월까지, 그 뒤에 굶는 한이 있더라도, 배급량을 확실히 늘릴 것이다. 그 기반을 가지고 내년에 어쨌든 김정은체제가 아래로부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북쪽은 최선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백준기:

북한이 그것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실제로 벌어질 걸 봉합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못 보여 준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정창현:

아니죠. 그걸 만약에 못하면 제일 먼저 문책을 당할 사람이 장성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

업을 지금 장성택이 맡아서 책임지고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백준기:

오히려 최고지도자로서 자기가 과업을 부여한 밑의 하급 관료가 못했을 때는 중앙 권력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김정은이 장성택을 문책할 정도의 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정창현:

지금 노동당 내에서 누구든 사람만 임명되면 저 사람 장성택 사람이라고 분파를 만드는데, 북에서 그런 파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세대적 갈등으로 봅니다. 2002년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7.1조치 이후 중국식 경제모델을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것이냐, 개혁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북 내부에 논쟁이 봉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나선시와 남포 정도 개방을 할 텐데,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북한 내부 강온파 사이에 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

중국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지원할까. 크게 보면 북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북중관계가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 하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이 대중국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존재방식을 둘러싸고 내부의 노선 투쟁들이 있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게 자력갱생일 수도 있고 개방을 통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자력갱생으로 가려고 하는 그룹들의 국제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택한 것은 중국과의 경험으로 푸는 것인데, 이게 의존의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면 북중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래킷 조항’ 때문에 계속 (중속적) 산업연관성 속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북한이 선택의 두려움에 빠진다. 그래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로 모멘텀을 찾아나가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초기에 머뭇거리기 없이 메뉴얼대로 나가는 것은 북으로 하여금 노선투쟁의 선택이 어떻게 가야 할 지 중국이 의사 표명한 게 된다.

종합한다면 북한에서 예상되는 갈등은 김 교수님의 질문과 같이 김정은의 개방에 대해 성과가 있는냐 여부가 아니라, 이희옥 교수님 말처럼 어차피 북한이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데 있어 대외 의존 딜레마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내부 갈등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세대갈등이 같이 겹쳐서 나타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의 유훈이 이런 것을 예측 안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개방이라는 정책적 유훈이 최근 2년간 보여줬던 대중국 개방으로 가는 노선이나, 아니면 북미관계를 포함해서 전방위 개방이나, 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전방위 개방을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희옥:

북한은 개방을 굉장히 전략적, 단계적으로 하는 것 같다. 압록강유역과 두만강 유역 등 매우 선택적으로 전략적 판단 속에서 한다. 중국이 예를 들어 나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입권 확보하고, 그러면 북한의 관심은 압록강 쪽으로 가는 전략적 카드를 쓴다. 전면적 개방은 최근 2년간 보였던 북중동맹 선에서 하는 것이지, 선을 넘기 어렵다. 개혁개방은 중국의 경험들을 배워서 적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실제로 연해 개방지역 기술자 파견을 예전엔 단속적으로 했는데 최근엔 규모 있게 가고 기간도 석 달 정도 체재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 회:

그때 중국 의존의 딜레마 문제는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볼까요?

이희옥:

북한 내부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활로를 찾는 방식이다. 크게 얘기하면 정말 동맹전이가 작동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맹 강화하고 남은 약화해야 하는데, 북한을 빼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맹 강화하고 한국을 빼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 회:

미국이 동맹전이 입장에서 마치 미얀마를 대하듯 북한을 끌어 들이려고 할 때, 북한이 북중관계의 희생을 감내하고 응할거냐 아니면 북미관계를 위해 북중관계를 희생하지는 않을 것인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뜻인가요?

이희옥:

북중동맹은 지금 상태에서 헤징(hedging)하지 않기 위해서 북중동맹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미국에 대해 헤징할 수 있다.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밸런싱한다기 보다는 북중동맹의 레인지를 깔고 미국과 한반도에 대해 선택적으로 헤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 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지만 중국이 용인할 수 있나요?

이희옥:

중국 입장에서는 북중관계가 상당히 공고화되었고, 일대일로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안정적인 관리 속에서 보고, 그 안에서 미중, 남북관계가 조정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보는 겁니다.

사 회:

미국이 한국에게 주는 자율성보다는 중국이 북한에 주는 자율성이 더 크다는 것으로 정리하죠.

북미관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제네바 북미회담을 하고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동맹전이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느냐. 클린턴 시절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많이 한 얘기는 ‘북한이 중국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미가 같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DJ정부가 미국을 많이 설득했었다. 그런 포지션을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김준형:

오바마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상당 기간 북한은 북중 동맹의 기반 위에 선택적으로 미국을 선택하고, 그 정도 선에서 미국은 북한을 관리하는 선에서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 상당히 오래간다고 봅니다.

사 회:

미중 협조체제 하에서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미국은 지속시키고자 할 것이란 건가요?

김준형:

미국이 계속 줄타기했다는 생각이 든다. 천안함-연평도사건 때 이삭줍기를 했다고 본다. 초기에는 뭔가 구도를 바꾸거나 북미관계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등 상당히 그랜드한 목표가 있었는데 국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뒤로 갈수록 미국은 북한문제에 대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선거까지는 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오바마가 재선된다면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북미관계가 나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사 회:

이번 제네바회담과 식량지원 같은 것은 미 대선에 북한이 돌발변수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김준형:

이걸 업적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정창현: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북이 고분고분 따라오면 좋은데, 그러나 북한이 경수로 짓는다고 하고 새로 개발된 미사일 쏘고,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헤커 박사 불러다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시위를 할 겁니다.

김준형:

북한이 모험주의 안 한다는 점에서, 김정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미국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오바마가 재선될 경우 타이밍이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 정권교체까지 겹치면.

사 회:

그 말씀은 미국은 김정일 사망으로 식량지원이 연기되고, 6자회담이 연기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요? 원래 우리가 예상한 것은 12월 22일 제네바합의 하고, 1월 식량 지원하고, 2월 6자회담 개최였는데 순연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바마에게 유리하다는 뜻인가요?

백준기:

결국 잘된 것 아닌가. 김정일이 할 것은 다 하고 갔다. 안 된 게 남북 관계였는데, 북-중, 북-러관계 제도화했고, 북미관계 개선단계다. 외교적으로 완결시키는 게 아닌가? 북미도 몇 달 차이 있지만 제

도화 과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한다.

사 회:

어떤 제도화 말인가요?

백준기:

3차 협상에서 막혔지만,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 뿐 아니라 북한 문제를 6자라는 제도 안에서 풀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늦춰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원하지도 않는다. 클린턴이 ‘약속’ 강조한 이유가, 이 회담을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김정일 사망 직전까지 프로세스가 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 회:

이런 기초가 김정일 사망으로 뒤집어지진 않을 것이라라는 결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2월은 김정일 생일이 있고 이 시기에 키리졸브훈련이 시작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곧 있고, 천안함 1주년도 있다. 2월 6자회담으로 분위기 부드럽게 갈 거라 했는데, 6자회담 연기되고 키리졸브훈련이 강화되면 우발적 상황이 우려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창현:

이명박정부가 이희호여사 조문 방북은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나머지는 막을 것이라고 봤는데, 민간 조의문까지 허가했다. 이걸 보면 핵안보정상회담 이전에 돌파구 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본다.

사 회:

이명박정부가 선택할 만한 돌파구는 총리 회담 같은 것 말인가요?

정창현:

아니, 금강산 회담이다. 금강산은 실제 논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손질할 게 많다.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풀려했는데 못했다. 이명박정부가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지난 10년간 3통문제 하나 못 풀었는데 우리가 풀었다, 그걸 기초로 해서 확실한 관광객 안전 확보했다면서 뽐부터 열고 가면 된다. 더 이상 진전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이명박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이다.

김준형:

그러려면 예전만큼 위력적이진 않지만, 여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인 북풍카드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등과 갈라질 가능성은 없나요?

사 회:

백준기, 김준형 선생님은 이명박정부가 여전히 보수진영의 단결이라는 국내정치 포지션 때문에 남북관계는 지금과 같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준형:

이명박정부에게 얼마만큼의 권력이 남았다고 보는지가 문제입니다.

백준기:

정치, 사회적 비용 들이지 않고서, 국면 전환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 그러나 과연 현 정부에게 그런 의지가 있을까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 회:

천안함-연평도에서 봤듯이 우리 의지대로 중국이 행동해주지 않는다. 미중 협조체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지역에서 미-중 이익이 충돌하면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준 게 작년 중국이 보여준 거친 외교다. 키리졸브훈련을 지금 이상으로 확대하면 중국이 한반도 관리태도를 다르게 취할 가능성이 크고, 한중관계 악화로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 국내 보수세력의 영향을 받아 강경한 기조로 끌고 가기에는 지금 국면이 녹록치 않다.

백준기:

그렇게 희망하지만, 국내 보수세력이 그렇게 유화적일 수 있겠느냐에 회의적입니다.

사 회:

미국이 대중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TPP나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져가느냐에 미국 내부 이견이 있나요?

김준형:

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든 결정 안하는 게 정답이다. 완전히 해결돼도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충실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정창현:

내 생각에는 최근 북미정책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진전됐다고 본다. 단순히 쌀도 아니고 영양식 얼마 받기 위해 우라늄 농축 중단하고, IAEA 사찰 받고, 조문 받아들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북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그 뒤 북한이 요구하고 미국이 발표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사전조치 하라고 요구한 것을 북한이 다 받았다. 그래도 한미가 안 나오면 중국이 북한에 할 말이 없어진다. 이진 판을 깨자는 것이다. 거기까진 가지 않을 것이다. 상당한 의견집근 있었다고 알고 있다.

사 회:

왜 미국이 받았는지요?

정창현:

2009년 말부터 2010년까지 뉴욕채널과 다른 채널에서 북미간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

미국이 궁금한 것, 즉 우라늄 농축, 탄도미사일 수준, 후계구도 등을 북이 스스로 공개해준 것이다.

사 회:

북한의 양보가 우리 생각보다 컸다는 뜻인가요?

정창현:

오바마정부는 비확산이라는 전제가 관철되면, 그 안에서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조금 더 개입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므로, 6자회담은 빨리 열려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경수로, 평화협정 등을 모두 하려는 건 쉽지 않다.

남쪽 정권이 교체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준비하고, 미국에 전향적 자세 요구하는 구조에서나 가능하다. 그러지 않은 구조에서 지금 6자회담에 가면 아마도 기술적인 부분에선 발전하겠지만 큰 틀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6자회담 틀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핵을 논의하는 6자회담은 끝났다는 것이다. 이제는 핵보유국으로서 평화협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둘이 핵협상 하자고 하는 건 오버인 것 같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즉, 평화협정을 같이 바꾸는 형태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말은 쉬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다.

사 회:

문제는 평화협정 논의 등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김준형:

헤커 박사 등 불러서 북한이 다 보여주고,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게 그만큼이라고 보여준 거다. 당시 미국은 그런 얘기 듣고도 안 믿었다.

사 회:

북한의 유도과 양보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것을 미국이 받기도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김준형:

그건 북한의 협상방식이다. 적어도 미국은 국내 내부적 견해를 무시할 수 없다.

사 회: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불안하게 본다. 동시에 미국의 국내정치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북정책에서 전진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것 아닌가?

김준형: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김정일의 사망이) 벌여준 측면이 있다. 적어도 내년 10월까지의 북한이 크

게 골치 아프지 않게 할 것이니까.

사 회:

정 주간님은 제네바회담에서 논의될 것이 어떤 수준이었다고 보았나요?

정창현:

6자회담을 재개하고 그 안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방식과 절차, 시점은 타결됐다고 본다. 그러나 그걸 열어놓고 논의해보면 상당히 먼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사 회:

중국도 국내정치로 성과를 내야하는 부분이 있다. 후진타오체제가 내년 10월 종료된다. 외교적 성과를 고민해야 한다. 6자회담 모멘텀을 잘 관리하고 한중관계 악화시키더라도 전략적인 것일 것이다. 북중간에 6자회담 재개는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지속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다. 협의에 대한 전권을 북한에게 툰키베이스로 넘겨준 것 같다. 중국도 6자회담이 자기들의 외교적 성과라고 받아들이나요?

이희옥:

중국에서 가장 쟁점은 감세논쟁이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은 것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민생을 보호하겠다는 게 논쟁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동북개발 등 지역 균형개발이다. 세 번째는 외교인데,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나면 중국이 세계적인 글로벌 파워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핵심적인 어젠더는 6자회담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 모멘텀을 살려나가고 성과를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 회:

우리들 간에 핵안보정상회의 전후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유화적 국면으로 나온 이유는 뭘까. 미국의 종속변수라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고, 개과천선 했다고도 볼 수 있나요?

김준형:

원래 이미지를 중시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지금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계산했을 것 같다. 보수층을 크게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획기적으로 확대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과 조율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술적인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희옥:

원래 이명박정부 출범시 엄격한 상호주의를 취하고 그 성과로 후반기에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게 기조였다. 선택한 정책은 한미동맹-한중관계를 공고화시키고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것이었으나, 그게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중관계 나빠지고 한미관계는 공고화됐지만 북중동맹이 공고화됐다.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다했다.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한국에 푸시(push)하는 것이다. 그게 통일부장관

교체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당히 유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 회:

외적 영향으로 인해 전환을 했지만, 대북정책 전환에 진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희옥:

정책 전환하기가 쉬워진 것이다. 위기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컨팅전시)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 라는 언술들이 예사롭지 않은 멘트라고 본다.

정창현:

이번 이명박정부가 조문 허가를 한 것은 팽팽한 의견 속에서 여론조사 결과나 언론의 논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며,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 성향 또한 작용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진짜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는 대중적 정서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내년 상반기 중 남북 간에 유연성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백준기:

이명박정부의 한반도 문제 정책 기조는 한반도 문제의 한미동맹화라고 본다. 국제화가 아닌 한미동맹화는 문제를 협소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신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범위인데, 제한적이지 않을까 한다. 한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김준형:

미국이 영향을 끼쳤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참아줬으니까 니가 해라' 정도의 압력이 아니고,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움직이는 것 같다. 이번에도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지, 미국이 전화해서 지시를 받은 수준은 아닌 듯하다.

사 회:

데프콘, 위치콘은 올리려다가 미국 때문에 못 올렸다. 그건 눈치를 본 것이다. 정보 문제에 관해서는 각국이 메뉴얼에 따라 움직였다면 소소한 정보의 차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제 김정일 없는 2013체제 어떨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하자.

백준기:

내년 1년만 안정된 기조를 유지한다면, 2013년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다. 미중러가 동아시아-아시아태평양 차원에서 새 국제질서 전환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 북한문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중에 부각된 두 가지는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러시아와 미국이 가입하고, TTP가 새로 부상하고, 호주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금융질서 뿐 아니라 안보분야 전환이 필요하다고 미국이

판단한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치경제질서 재편을 모색한다. 여기서 아시아태평양에서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까지 다시 한 번 관여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 듯하다.

러시아는 여기에 동의하는 듯하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에 온전한 재진입의 해를 내년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국가통합성에서 아시아 재진입이 '결정적' 이라고 본다. 유럽-러시아와 아시아-러시아 간의 경제적, 지역적, 안보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출발이 2012년 9월 APEC 회담으로 본다. 두 가지를 통해 돌파하려 했다. 첫째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서(입구) 북한으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출구). 그러려면 북과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북의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푸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 문제이다. 식량문제로 풀릴 수는 없다. 고 정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자본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북이 흔들리면 극동시베리아계획이 다 흔들린다. 내년 APEC도 보장 못한다. 작년 북과 러시아가 구조적 전환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본다. 외부적으론 가스 파이프, 군사적인 것도 논의됐을 것이다. 북은 원조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 파이프라인 개설되면 매년 최소 1억달러(북한의 1년 무역총액과 맞먹는다) 안정적으로 들어간다. 러시아가 이 정도 해주면 북한이 지탱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게 아닐까. 이것을 김정일 방러에서 마지막 합의한 게 아닌가 싶다.

사 회:

미-러가 아태로 돌아오는 시기이다. 그것을 기회로 보는 건가.

백준기:

한국, 북한 다 기회이고, 러시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 러시아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 불확실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한 면밀한 대비를 해야 하지만,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까 얘기한 국가플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겠다는 얘기 들이 나온다.

정창현:

김정일위원장이 안 피던 담배를 다시 피고 위스키 다시 마시기 시작한 시점에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고, 자기시대를 결산하고 후계자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의 고민이 2008년 쓰러진 이후 많지 않았나 한다. 그런 고민이 지난해 김정은체제를 출범시키고 당-군을 김정은 사람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지금 유고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정적으로 승계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본다.

3대세습 비판과 별개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내려오는 것이 북쪽의 세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새로 등장하는 김정은체제는 북의 3~4세대들의 생각과 지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에 핸드폰이 100만대가 넘어가고 있고, 젊은세대의 의식구조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북쪽 노동자가 1만명이 나와 있다. 그들이 훈춘, 단둥 등에 많이 나오려고 하는데, 수만명의 사람들이 중러에 나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다시 들어간다. 그런 의식을 마냥 억누르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북의 새로운 20~40대는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고 게임을 즐기고, 채팅을 하고, 전화하는 세대다. 그들의 의식은 그런 편리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김정일체제 보다는 김정은체제가 개혁조치에 나서기 훨씬 유리한 조건이지 않을까. 일부에선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면서 김정은이 더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94년 김정일이 물려받은 조

건보다는 김정은이 훨씬 좋은 조건임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내년은 북쪽이 지난 몇 년간 사활을 걸고서 노력한 성과물이 일정하게 나오는 해이므로 체제 정당성 또한 선전할 수 있다.

사 회:

2013년 체제가 국제적으로 보면 새로운 권력변동이 나타나지만, 북한문제를 볼 때 북한의 유사 보다는 연착륙이 모든 국가나 지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미중관계도 불확실성 속에 있으므로 현상을 타파하며 발생할 위험한 행보들을 자제하려 할 것이다. 공동인식에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공동회피로 갈 가능성, 모든 국가들이 좌에서 우까지 진폭들을 줄어나갈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추세에 맞게 우리가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한반도의 2013년체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도 과거처럼 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는 열면서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위원장의 유고가 불확실성 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다.

김준형:

김정일 사망 때 타이밍이 좋다는 생각과 나쁘다는 생각이 다 들었다. 북측으로 봐서, 김정일의 부담 보다는 김정은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간의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교착으로 간 것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어 좋다고 봤다.

한국으로 봐선, 노무현정부 때나 내년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했다. 왜냐면 우리가 레버리지를 다 잃은 상태기 때문에 호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했다.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히 선제적으로 중국의 행보와 비슷한 정도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발이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것은 없어서 낙관적이지만, 확실히 어떤 돌파상황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련 6개국도 다 무의식중에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 회:

이상으로 코리아연구원 전문가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